

# 산골농장 제5회 계란, 장미 축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달간 경남 산청 산골농장에서 계란, 장미축제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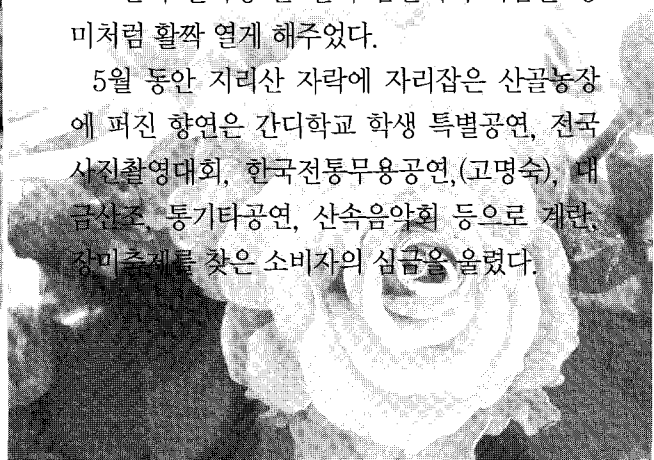


▲ 이상호 산골농장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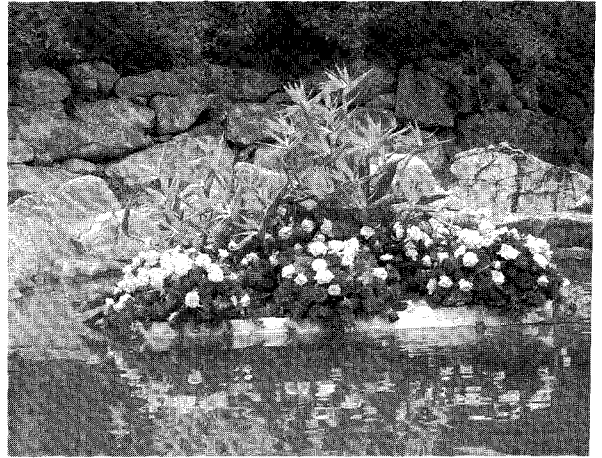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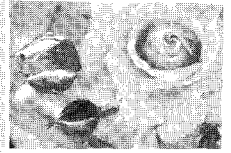
산골농장의 계란, 장미축제는 올해로 5회로 매년 행사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친환경 양계농가로 소비자에게 다가서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상호는 사장은 지난 20일 개회식날 인기 텔런트가 함께하는 “생명나눔 연예인 봉사단 효도잔치 한마당”를 열어 참관객의 마음을 장미처럼 활짝 열게 해주었다.

5월 동안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은 산골농장에 퍼진 향연은 간디학교 학생 특별공연, 전국 사진촬영대회, 한국전통무용공연, (고명숙), 대금산조, 통기타공연, 산속음악회 등으로 계란, 장미축제를 찾은 소비자의 심금을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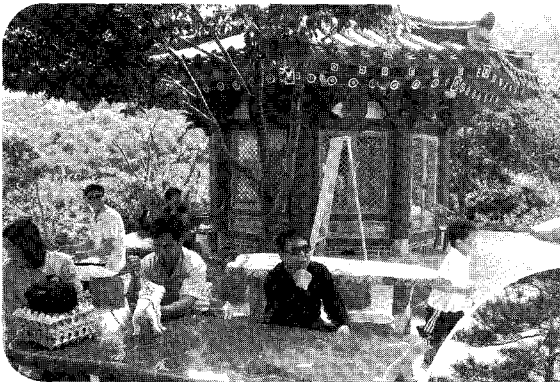


# 소비자가 찾는 장미농장



▲ 농장내에 연못에는 분수가 설치되고, 연못 한가운데 장미가 피어 있다.

작년에 10만명의 소비자가 산골농장을 방문했고, 올해는 15만명 방문을 예상하고 있다. 관광객은 장미 뿐만아니라 수많은 꽃을 볼 수 있으며, 농장내 설치된 쉼터, 놀이터, 분재와 수석을 감상할 수 있는 공원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다.



▲ 관람객 쉼터(팔각정)



▲ 소비자를 위한 꽃의 이름표 부착



▲ 수석과 조경림의 조화가 이루어진 공원(심곡목석원)

